

한국 수영, 세계선수권 금빛 물살 가르다

김우민·황선우, 2회 연속 금메달 도전…“계영 800m 세계新 목표”
다이빙 간판 김수지 1m 스프링보드·최병화 2연속 하이다이빙 출전

오는 11일 개막해 다음 달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25 국제수영연맹(World Aquatics)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대형 국제대회가 없는 해에 열리는 이벤트다.

지난해 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대회는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둔 터라 일부 정상급 선수들이 불참했지만,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수영 스타들이 대거 참가한다.

한국 수영 대표팀은 파리 올림픽에서 '황금 세대'를 내세워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으나 자유형 400m에서 김우민(강원도청)이 동메달을 목에 걸며 유일한 메달을 건졌다.

물론 12년 만의 올림픽 수영 메달이라 값진 수확이었으나 최소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노렸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시 힘차게 전진을 선언한 한국 수영은 2026 아시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전초전 격인 이번 대회에서 2회 연속 '금빛 역영'을 기대한다.

한국 수영의 세계선수권대회 최고 성적은 지난 도하 대회에서 남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다.

당시 김우민과 황선우(강원도청)가 각각 자유형 400m, 2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남자 800m 계영은 은메달을 따내 역대 한국 경영 세계선수권대회 첫 단체전 메달을 합작했다.

다이빙에서도 김수지(울산시청)가 여자 3m 스프링보드 동메달, 김수지와 이재경(인천시청)이 싱크로 3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얻었다.

이번 대회에 우리 대표팀은 지도자 12명과 선수 35명을 파견한다.

자유형 400m에 출전하는 한국 중장거리 수영 간판 김우민은 "디펜딩 챔피언인 만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고 목표를 밝혔다.

김우민의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를 가로막을 가장 큰 경쟁자는 루카스 메르텐스(독일)다.

파리 올림픽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 메르텐스는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지난 4월에는 3분39초96으로 자유형 400m에서 '3분40초'의 벽을 최초로 깨고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

파리 올림픽 자유형 200m에서 결승 진출 실패라는 아픔을 맛봤던 황선우는 좋지 않았던 흐름을 끊는 게 필요하다.

황선우는 지난 3월 대표선발전 자유형 200m를

1위로 통과했지만 1분45초40으로 자신의 최고 기록(1분44초40)보다 1초가 뒤처졌다.

황선우가 주춤한 사이, 라이벌이었던 다비드 포포비치(루마니아)는 지난달 유럽 선수권대회에서 1분43초64로 우승해 올 시즌 자유형 200m 1위 기록을 세웠다.

여기에 루크 홉슨(미국)도 1분43초73의 시즌 최고 기록으로 황선우를 위협한다.

2022 부다페스트 대회 자유형 200m 은메달, 2023 후쿠오카 대회 이종목 동메달에 이어 지난해 도하에서 금메달을 수신했던 황선우는 "4회 연속 포디움(시상대)에 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한국 경영 대표팀이 가장 힘쓰는 종목은 남자 계영 800m다.

한국은 이번에는 이 종목에서 '금빛 역영'을 기대한다.

황선우에 김우민, 이호준(제주시청) 3명의 영자는 지난해와 같고, 4번 영자로 2006년생 막내 김영범(강원도청)이 새롭게 합류한다.

접영이 주 종목인 김영범은 올해 3월 대표선발전 자유형 100m에서 황선우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터라, 한국 수영계는 오랜 고민인 계영 800m 4번 영자를 맡을 적임자가 등장했다는 반응이다.

김영범은 이번 대회에서 계영 800m에 집중하고자 접영 100m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배들과 상의 없이 "계영 800m 세계 신기록이 목표"라는 목표까지 호기롭게 이야기했다.

지난해 도하 대회에서 동메달 2개로 최고 성과를 냈던 다이빙은 이번 대회에서도 메달을 노린다.

간판 김수지가 무릎 수술 이후 완전히 재활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출전을 강행한다. 이번에는 1m 스프링보드 경기에만 나선다.

김수지가 싱크로 종목에 출전하지 않아 도하 대회의 '짝'을 잃어버린 이재경은 정다연(광주시체육회)과 3m 스프링보드 싱크로로 호흡을 맞춘다.

'수영 마라톤' 오픈워터 스위밍에서는 오세범(국군체육부대)과 박재훈(서귀포시청), 김수아(서울둔촌고), 황지연(경남체고) 등 4명이 출전한다.

27m 높이에서 점프하는 하이다이빙에서는 최병화(인천시수영연맹)가 지난해 후쿠오카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세계선수권대회 무대에 선다.

/연합뉴스



1 경영 국가대표 선수들이 8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 준비를 하고 있다. 2 물살 가르다 김우민. 3 다이빙 국가대표 김수지 훈련하는 모습. 4 경영 국가대표 황선우가 스타트 훈련을 하고 있다.

광주체고 박주혁, 화랑기 전국 시도대항양궁대회 2관왕 활약

송하린 금 등 메달 5개 수확

광주체고가 화랑기 제46회 전국 시도대항양궁대회 거리별 경기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박주혁(2년)은 남고부 2관왕에 올랐다.

박주혁은 지난 9일 전북 국제양궁에서 열린 남고부 50m 경기에서 347점을 기록하면서 강원체고 최철준을 1점 차(346점)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박주혁은 30m에서도 357점을 기록하면서 심유한(광주체고 2년·355점)과의 접전 끝에 1위에 올랐다.

1·2라운드에서 6개의 화살을 모두 10점에 꽂아 넣은 박주혁은 2세트에서는 5개의 화살을 정중앙에 명중시키면서 2관왕이 됐다.

송하린(1년)은 여고부 60m에서 344점을 쏘면서 대구체고 김민정과 공동 1위에 올랐다. 순천여고 조한이(3년)가 343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광주체고가 화랑기 제46회 전국 시도대항양궁대회에서 메달행진을 펼치고 있다. 거리별 경기에서 메달을 획득한 송하린(왼쪽부터), 남지현, 심유한, 박주혁이 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체고 제공>

여고부 50m에서는 남지현(3년)이 335점으로 대전체고 김민정(343점), 전북체고 유슬하(336점)에 이어 예천여고 정서은과 공동 3위에 자리했다.

광주체고 선수들은 12일까지 올림픽 라운드로 진행되는 개인전과 단체전·혼성전에서 추가 메달 사냥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우상혁, 첫 단일 시즌 다이아몬드리그 2회 우승 도전

12일 모나코서 점프

올해 국제대회 6회 연속 우승 행진을 벌인 '스마일 점퍼' 우상혁(29·용인시청)이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에서 세계 최정상급 점퍼와 맞붙는다.

7회 연속 우승에 성공하면 우상혁은 처음으로 단일 시즌에 2번 이상 다이아몬드리그 개별 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도 누린다.

우상혁은 한국시간으로 12일 오전 2시 55분에 시작하는 2025 세계육상연맹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 출전한다.

세계육상연맹은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 소개 글에 "파리 올림픽 챔피언 해미시 커(뉴질랜드)가 세계실내선수권 챔피언 우상혁, 파리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쉐비 매튜언(미국), 유럽팀선수권에서 우승한 얀 스테펠라(체코)와 경쟁한다"고 썼다.

이들 외에 올 시즌 기록 순위 1위(2m34) 올레도로슈크(우크라이나), 2023년 세계선수권 은

메달리스트 주본 해리스(미국)도 출전한다.

올 시즌 가장 기복 없는 경기력을 보이는 점퍼는 무패 행진 중인 우상혁이다.

실내 시즌 3개 대회(2월 9일 체코 실내대회 2m31, 2월 19일 슬로바키아 실내대회 2m28, 3월 21일 중국 난징 세계실내선수권 2m31)에서 정상에 오르더니, 실외 시즌에서도 3개 대회(5월 10일 왓그래비티챌린지 2m29, 5월 29일 구미 아시아선수권 2m29, 6월 7일 로마 다이아몬드리그 2m32)에서 1위를 차지했다.

우상혁은 시즌제로 열리는 다이아몬드리그에 2022년부터 출전해 매해 1개 대회씩 정상에 올랐다.

2022년 5월 카타르 도하에서 한국 육상 최초로 다이아몬드리그를 제패했다. 2023년에는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높이뛰기 랭킹 포인트 상위 6명만 출전한 파이널에서 우승해 다이아몬드 모양의 커다란 트로피를 받았다. 로마 대회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종류 in 광주'

일시 / 장소 :

2025-07-12(토) 11:00, 13:00 / 북구 문화근린공원

2025-08-02(토) 13:00, 15:00 / 청담 국립광주과학관

2025-08-03(일) 13:00, 15:00 / 청담 국립광주과학관

문의 : 062-526-0363

*우천 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담다

조 선 아

Choo Sun A Solo Exhibition

2월 11일 ~ 8월 10일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조선아 개인전 : 시간을 담다

일시 : 2025-07-11(금)~2025-08-10(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